

경기도, 서해안·DMZ 등 '생태관광 메카로 육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1.02.05 08:56 수정 : 2021.02.05 08:56

2년 동안 탐방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3억5천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 경기 동·남부 등 권역을 대상으로 3곳을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3월 5일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3곳을 거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9년부터 '20년까지 6곳의 거점을 선정해 생태관광거점을 조성했다.

경기도 생태관광거점 1기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화성 우음도, 평택 소풍정원 일원, 고양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파주 DMZ,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평 축령산 등이다.

이번 공모로 3곳이 더 선발되면 경기도에는 9개소의 생태관광 거점이 생긴다.

생태관광은 생태(자연)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키워드로 한 관광 형태로, 생태(자연)를 주제로 하는 관광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해안의 갯벌, 경기북부의 비무장지대(DMZ)가 생태에 해당되고, 이곳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마을이나 주민단체가 지역주민에 해당하는 셈이다.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은 2년간 2억원의 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탐방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의 설치와 보수, 교육·체험관, 탐방로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환경 개선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 생태관광 체험 상품 기획과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생태보전 활동 등 프로그램에는 2년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거점 조성을 도울 전문가 그룹을 구성, 선정된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밀착 자문과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간담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기관광포털과 전단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에는 해안, 갯벌, 산악, 강, 숲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면서 "휴식과 함께 환경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생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거점지역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생태관광 거점 선정을 위한 공모는 도내 31개 시·군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군에서는 거점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주민 단체(단체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경기도로 추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